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정서표현성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S시 G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아들과 그들의 어머니 269명으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SPSS WIN 1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분석, t검증, ANOVA 검증, Scheffé 사후 검증, Pearson 적률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정서표현성,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살펴본 결과 연령, 양육참여시간,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정서표현성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정서표현성은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영아가 사회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고 긍정적 정서표현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주제어: 양육효능감

(Parenting Efficacy)

정서표현성

(Emotional Expressiveness)

사회정서발달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정서표현성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on Infant's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박 미 숙¹⁾

Mi Suk Park

정 희 정²⁾

Hee Jung Chung

I. 서론

영아기는 모든 발달의 근간이 되는 시기로 신체적, 인지적, 언어적 및 사회정서적발달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 특히 영아기는 사회정서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로 간주되는데, 이는 영아기에 맺는 타인과의 관계는 성인이 된 후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행동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나양균, 2006). 즉, 출생 후 2세까지의 영아기는 애착을 형성하고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중요한 시기로(Brownell & Kopp, 2007), 영아는 일상생활에서 성인들과 상호작용 하면서 집단에서 요구하는 행동양식을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조절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는 사회정서발달을 이루게 된다(김호인, 2010; 류은미, 2011; 최문희, 2010).

영아기 때 최초로 접하는 인간관계는 어머니와의 관계로 영아에게 있어서 가장 밀접한 사회관계를 형성한다(장사남, 2012). 영아의 발달에 있어 어머니의 영향은 어느 사회의 환경보다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력이 있는데, 어머니로부터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 사회정서발달은 영아가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인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발달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백지숙, 권은주, 2017; 양승희, 2016; 한명숙, 2016). 따라서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어머니의 양육 관련 특성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자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Bandura(1982)는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양육의 차원에 적용하여 양육효능감을 제시하였는데,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바람직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부모역할 수행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념이라 할 수 있다.

* 본 논문은 2018학년도 충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사과나무 어린이집 원장, 제1저자

2) 충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교신저자
(yeinsmom@hanmail.net)

이러한 양육효능감은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증대하는 경향이 있다. 즉 양육효능감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이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이라면, 양육과정에서 오는 다양한 문제 상황들에 직면했을 때 어머니의 높은 양육효능감은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실제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를 온정적이고 능동적이며 자율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고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이나 사회성을 형성하도록 이끄는 반면,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강압적이거나 무기력한 양육행동을 보이고 부모역할에 수동적 대처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라, 2017; 이충량, 문혁준, 2011; 홍선미, 2017). 이는 실제 능력 차이가 없다 해도 양육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과제를 더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영유아기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이경하, 서소정, 2012; 이사라, 권정임, 이해린, 2009; 이수진, 2011; 이주연, 2010; 이주옥, 2008). 이처럼 양육효능감이 중요시 되는 이유는 양육과정에서 부모가 느끼는 감정과 신념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녀의 발달에 다양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조영숙, 이양희, 2007). 따라서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변인으로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설정하여 양육효능감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자녀에 대한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정서 관련 양육행동은 부모의 정서에 대한 신념 및 가치와 높은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정서 관련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정서표현성을 증진시킨다(백승선, 안연경, 광경화, 2017). 최초의 양육자로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자녀에게 상황에 따른 정서반응 양식의 모델이 되고, 영아가 타인의 정서적 반응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에 영향을 준다(김숙령, 고윤희, 2013). 정서표현성은 개인의 정서를 외적으로 표출해 낼 수 있는 성향으로(임영미, 정희정, 2016)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을 포함한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정서적 반응이며, 이는 긍정적 정서표현성과 부정적 정서표현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혜나, 2011).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즐거움이나 자랑스러움과 같은 정서표현을 포함하고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분노와 두려움 등의 정서표현을 포함한다(현정희, 2005).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자녀가 정서를 조절하거나 표현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학습하게 하고, 정서표현성과 모델에 대한 강화자 역할을 하며, 어떤 정서가 타인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적절한가를 이해하는데 영향을 준다(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Saarni, 1979), 즉, 자녀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을 관찰하고 모방해 나가면서 정서표현성에 대한 규칙을 내면화하고, 스스로의 정서표현성 방법과 타인의 정서표현성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Dunmore & Halberstadt, 1997). 이처럼 자녀는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에 대한 모방과 해석, 가르침 등을 통해서 각성수준, 주의력, 정서 등의 개인 내적 요소와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과 같은 대인관계 측면을 발달시키는데(Cassidy, Parke, Butkowski, & Braungart, 1992), 이러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도 긍정적 표현성과 부정적 표현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한영민, 2005).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자녀가 정서를 잘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듦으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과 감정 조절에 도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타인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증진시킨다(김미경, 2013; 서혜린, 2007; 우수경, 2008). 반면 어머니의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자신의 요구나 상대의 약점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어머니 자신과 자녀의 비합리적인 행동은 유아의 부정적인 대인관계를 초래하게 된다(권연희, 2012; 송하나, 최경숙, 2006; 유미, 2008; 이한애, 2007). 이처럼 긍정적 정서를 자주 표현한 어머니를 가진 자녀들이 타인의 정서와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났으며, 협조성과 이타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오영희, 우수경, 김화자, 2006; 윤연정, 이미숙, 2007; 이현주, 문혁준, 2011). 따라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있어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어머니의 양육 관련 특성과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지식 등 양육신념이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김예빈, 2005; 문태형, 2002; 박미라, 2017), 어머니의 구체적인 양육태도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이정순, 2002; 양보라, 2007), 어머니의 정서 관련 특성이 영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김경희, 2010; 김미경, 2013; 김숙령, 고윤희, 2013; 김순정, 2000; 남현정, 2008; 이어주, 2016) 등이 있었다. 이렇듯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관련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도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영아기 어머니-자녀관계 경험이 사회정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정서표현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정서표현성이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적절한 지도방안 및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른 양육 효능감 정서표현성,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정서표현성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정서표현성이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대상은 S시 G구에 소재한 가정어린이집 35곳, 민간어린이집 5곳, 국공립어린이집 1곳에 다니고 있는 영아들의 어머니이다. 본 연구를 위해 총 318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중에서 288부(92%)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중 문항에 반응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판단되는 설문지 19부를 제외한 총 269부(93%)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N = 269)

	구분	빈도(N)	비율(%)
연령	만29세미만	16	5.6
	만30-34세	83	30.9
	만35-39세	124	46.1
	만40-44세	40	14.9
	만45세 이상	6	2.2
학력	고등학교졸업	20	7.4
	전문대졸업	74	27.5
	4년제대학졸업	138	51.3
양육참여 시간	대학원이상	37	13.8
	10분-30분미만	3	1.1
	30분-30분미만	5	1.9
직업	1시간-2시간미만	21	7.8
	2시간이상	240	89.2
	전문직	60	22.3
	공무원	13	4.8
	자영업	6	2.2
	전업주부	104	38.7
	판매/서비스직	33	12.3
	사무직/기술직	53	19.7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만 35-39세가 124명(46.1%), 만 30-34세가 83명(30.9%), 만 40-44세가 40명(14.9%), 만 29세 이하가 16명(6.0%), 만 45세 이상이 6명(2.2%) 순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졸업이 138명(51.3%), 전문대 졸업이 74명(27.5%), 대학원 이상이 37명(13.8%), 고등학교 졸업이 20명(7.4%) 순으로 조사되었다. 양육참여시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2시간 이상이 240명(89.2%), 1-2시간 미만이 21명(7.8%), 30-60분 미만이 5명(1.9%), 10-30분 미만이 3명(1.1%) 순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직업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전업주부가 104명(38.7%), 전문직이 60명(20.3%), 사무직, 기술직이 53명(19.7%), 판매서비스직이 33명(12.3%), 공무원이 13명(4.8%), 자영업이 6명(2.2%) 순으로 조사되었다.

2. 연구도구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Gross와 Rocissano(1988)의 걸음마기 영아를 양

육하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Toddler Care Questionnaire)를 번안한 이경하(2009)의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경하(2009)의 양육효능감 척도는 의사소통 능력(12문항), 교육(7문항),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9문항), 발달지원(8문항)등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 대한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측정도구의 하위요인, 문항번호 및 문항수,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 문항번호 및 문항수,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의사소통 능력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2	.92
교육	20, 21, 22, 23, 25, 26, 27	7	.83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28, 29, 30, 31, 32, 33, 34, 35, 36	9	.86
발달지원	1, 2, 3, 4, 5, 6, 7, 24	8	.87
전체		36	.96

2)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본 연구에서 영아의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을 측정하기 위해 Halberstadt(1986)가 개발한 가정에서의 정서표현 질문지(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FEQ)를 안라리(2005)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가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정서표현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강한-긍정적 정서표현, 약한-긍정적 정서표현, 강한-부정적 정서표현, 약한-부정적 정서표현 등 각 10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Halberstadt(1986)가 도구를 개발한 이후의 연구(Miller & Greenburg, 1989)에서 네 개의 하위요인보다는 긍정적 정서표현과 부정적 정서표현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이 보고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따랐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 대한 정서표현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측정도구의 하위요인, 문항번호 및 문항수,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의 하위요인, 문항번호 및 문항수,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긍정적 정서표현	1, 2, 3, 6, 17, 18, 19, 21, 22, 23, 25, 26, 28, 29, 30, 31, 33, 34, 35, 38, 39, 40	22	.86
부정적 정서표현	4,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20, 24, 27, 32, 36, 37	18	.86
총 문항수		44	.92

3) 영유아 사회정서발달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김호인(2010)의 사회정서발달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기본정서 및 사회적 행동(5문항), 자아개념(7문항), 자기조절(11문항), 사회적 관계(6문항) 등 4개 하위요인의 총 2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에 대한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측정도구의 하위요인, 문항번호 및 문항수,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표 4.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의 하위요인, 문항번호 및 문항수,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기본정서 및 사회적 행동	1, 2, 3, 4, 5	5	.73
자아개념	6, 7, 8, 9, 10, 11, 12	7	.80
자기조절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1	.71
사회적 관계	24, 25, 26, 27, 28, 29	6	.70
전체		29	.84

3. 자료수집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에서 선정한 검사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정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아의 어머니 29명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1월 5일까지 5일 동안 예비조사를 실

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각 검사도구의 문항에 대한 이해 정도와 설문 소요시간 등을 체크하고, 진술된 내용과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본 연구에서 선정한 검사도구와 설문지에 문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모든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S시 G구에 소재한 가정어린이집 35곳, 민간 5곳, 국공립어린이집 1곳 등 총 41곳을 선정하고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실시방법, 소요시간과 실시기간에 대해 설명한 후 협조를 요청하여 영아 어머니 2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17년 11월 13일부터 2017년 11월 20일까지 설문지 총 288부를 배부하였으며 본 연구자가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고 회수하였다. 최종적으로 281부가 수거되었으며, 이중 성실하게 답하지 않은 설문지 12부를 제외한 269부가 분석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6.0 Win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계산하였고, 영아와 어머니의 영아의 일반적 배경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표 5.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차이

구분	N	의사소통능력		교육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발달지원		양육효능감 (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연령	만29세이하(A)	16	4.05	.57	3.72	.64	4.15	.45	3.89	.42	3.95	.45
	만30~34세(B)	83	4.14	.51	3.79	.54	4.04	.46	3.95	.53	3.98	.46
	만35~39세(C)	124	4.09	.48	3.81	.48	4.07	.55	3.92	.50	3.97	.45
	만40~44세(D)	40	4.18	.52	3.87	.55	4.03	.51	3.99	.59	4.02	.50
	만45세이상(E)	6	3.29	.50	3.21	.23	3.28	.67	3.31	.13	3.27	.33
	F		4.33**		2.26		3.56**		2.37		3.59**	
	Scheffé		E(A,B,C,D)			E(A,B,C,D)			E(A,B,C,D)			
학력	고등학교졸업	20	4.27	.43	3.93	.40	4.26	.46	4.05	.49	4.13	.39
	전문대졸업	74	4.08	.51	3.81	.51	4.05	.49	3.95	.52	3.97	.45
	4년제 졸업	138	4.06	.52	3.73	.51	3.98	.52	3.85	.52	3.91	.46
	대학원이상	37	4.19	.52	3.93	.58	4.14	.61	4.05	.52	4.08	.52
	F		1.53		2.04		2.28		2.08		2.36	
양육참여 시간	10~30분미만	3	3.89	.48	3.38	.58	3.26	1.09	3.38	.65	3.48	.70
	30~60분미만	5	4.25	.82	4.00	.73	3.87	1.15	4.03	.75	4.04	.84
	1~2시간미만	21	3.91	.36	3.63	.36	3.95	.34	3.69	.40	3.79	.29
	2시간이상	240	4.11	.52	3.81	.52	4.06	.51	3.95	.52	3.98	.46
	F		1.35		1.75		2.81**		2.81**		2.26	
직업	전문직	60	4.02	.57	3.78	.56	3.92	.63	3.91	.60	3.91	.54
	공무원	13	4.11	.50	3.78	.58	4.10	.49	3.93	.53	3.98	.49
	자영업	6	4.18	.58	4.07	.58	4.07	.41	4.04	.47	4.09	.47
	전업주부	104	4.11	.49	3.80	.54	4.06	.52	3.91	.53	3.97	.46
	판매서비스직	33	4.12	.57	3.83	.56	4.10	.49	4.06	.56	4.03	.51
	사무직기술직	53	4.14	.46	3.77	.38	4.09	.45	3.85	.35	3.96	.35
	F		.42		.40		.84		.76		.38	

**p < .01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또한, 측정 변인의 기술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ANOVA검증,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정서표현성,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정서표현성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Durbin-Watson값과 VIF값을 살펴보았다.

III. 결과 및 해석

1.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정서표현성,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1)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차이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

표 6.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차이 (N = 269)

구 분	N	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		
		M	SD	M	SD	
연령	만29세이하	16	3.65	.47	2.93	.57
	만30~34세	83	3.85	.39	2.85	.46
	만35~39세	124	3.59	.39	2.79	.46
	만40~44세	40	3.61	.34	2.83	.49
	만45세이상	6	3.63	.20	3.09	.41
	F			.34		.89
학력	고등학교졸업(A)	20	3.54	.49	2.70	.51
	전문대졸업(B)	74	3.52	.34	2.84	.48
	4년제 졸업(C)	138	3.62	.37	2.85	.47
	대학원이상(D)	37	3.82	.40	2.82	.44
	F			5.53***		.57
			Scheffé		B,C(D)	
양육참여 시간	10-30분미만(A)	3	3.29	.03	2.24	.61
	30-60분미만(B)	5	3.48	.29	2.19	.46
	1-2시간미만(C)	21	3.53	.36	3.05	.41
	2시간이상(D)	240	3.63	.39	2.83	.46
	F			1.39		6.67***
			Scheffé		A(C), B(C,D)	
직업	전문직	60	3.60	.33	2.84	.50
	공무원	13	3.72	.36	3.06	.37
	자영업	6	3.58	.61	2.65	.64
	전업주부	104	3.59	.39	2.80	.47
	판매서비스직	33	3.69	.40	2.88	.36
	사무직 기술직	53	3.62	.41	2.82	.50
	F			.59		1.02

p < .01, *p < .001

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첫째, 연령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보면, 의사소통능력(F=4.33, p<.01),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F=3.56, p<.01), 그리고 양육효능감 전체(F=3.27,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의사소통능력에서 만 44세 이하의 세 집단이 만 45세 이상의 집단(M=3.29, SD=.50)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에서도 만 44세 이하의 세 집단이 만 45세 이상의 집단(M=3.28, SD=.67)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양육효능감 전체에서 만 44세 이하의 세 집단이 만 45세 이상의 집단(M=3.27, SD=.33)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둘째, 양육참여시간은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F=2.81, p<.05)과 발달지원(F=2.81,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하위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반면 어머니의 학력과 직업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2)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차이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른 정서표현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첫째, 학력에 따른 정서표현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긍정적 정서표현(F=5.53,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학원 이상의 집단(M=3.82, SD=.40)이 전문대 졸업 집단(M=3.52, SD=.34)과 4년제 졸업 집단(M=3.62, SD=.37)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를 보였다. 둘째, 양육참여시간에 따른 정서표현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정적 정서표현(F=6.67,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 Scheffé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1-2 시간미만의 집단($M=3.05$, $SD=.41$)이 10-30분미만의 집단($M=2.24$, $SD=.6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1시간 이상의 두 집단이 30-60분 미만의 집단($M=2.19$, $SD=.46$)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어머니의 연령과 직업에 따른 정서표현성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3)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른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차이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른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첫째, 학력에 따른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의 차이를 살펴보면, 기본정서 및 사회적행동($F=4.09$,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Scheffé의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고등학교 졸업 집단($M=4.23$, $SD=.41$)이 전문대 졸업 집

단($M=3.82$, $SD=.52$)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를 보였다. 둘째, 양육참여시간에 따른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아개념($F=3.32$,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Scheffé의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하위집단 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반면 어머니의 연령과 직업에 따른 사회정서발달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정서표현성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에 앞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정서표현성,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7.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차이

(N = 269)

구 분	N	기본정서 및 사회적행동		자아개념		자기조절		사회적 관계		사회정서 발달(전체)		
		M	SD	M	SD	M	SD	M	SD	M	SD	
연령	만29세이하	16	4.04	.61	4.21	.59	3.39	.57	3.80	.49	3.86	.36
	만30~34세	83	3.95	.54	4.10	.58	3.21	.42	3.74	.47	3.75	.35
	만35~39세	124	3.94	.50	4.14	.50	3.26	.40	3.77	.49	3.78	.33
	만40~44세	40	3.93	.53	4.10	.47	3.38	.39	3.84	.52	3.81	.33
	만45세이상	6	3.67	.48	3.55	.47	3.27	.39	3.72	.38	3.55	.39
F			.56		1.97		1.40		.31		1.13	
학력	고등학교졸업(A)	20	4.23	.41	4.37	.49	3.25	.43	3.88	.50	3.93	.35
	전문대졸업(B)	74	3.82	.52	4.09	.50	3.28	.44	3.77	.44	3.74	.35
	4년제 졸업(C)	138	3.94	.49	4.10	.54	3.26	.38	3.74	.50	3.76	.32
	대학원이상(D)	37	4.05	.63	4.07	.56	3.32	.49	3.83	.50	3.82	.37
	F			4.09**		1.77		.26		.64		2.00
사후검증(Scheffé)			B<A									
양육 참여 시간	10-30분미만	3	3.67	.23	3.57	.00	3.61	.14	3.50	.29	3.59	.11
	30-60분미만	5	3.92	.73	3.57	.83	2.95	.58	3.47	.59	3.48	.58
	1-2시간미만	21	3.90	.42	4.24	.42	3.41	.36	3.73	.48	3.82	.30
	2시간이상	240	3.95	.53	4.12	.52	3.26	.42	3.79	.48	3.78	.34
	F			.36		3.32*		2.47		1.10		1.77
직업	전문직	60	3.90	.51	4.02	.56	3.30	.42	3.81	.40	3.76	.35
	공무원	13	4.22	.47	4.32	.40	3.41	.51	3.96	.54	3.98	.37
	자영업	6	3.83	.73	4.02	.71	3.35	.55	3.97	.43	3.79	.35
	전업주부	104	3.94	.54	4.11	.51	3.26	.42	3.70	.52	3.75	.33
	판매서비스직	33	3.96	.57	4.14	.55	3.22	.40	3.84	.46	3.79	.36
	사무직 기술직	53	3.95	.47	4.16	.52	3.25	.40	3.76	.50	3.78	.31
	F			.86		.90		.51		1.28		1.06

*p < .05, **p < .01

표 8. 정서표현성, 양육효능감, 사회정서발달의 상관관계 (N = 269)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①	1											
②	.31***	1										
③	.28***	-.28***	1									
④	.19**	-.35***	.79***	1								
⑤	.25***	-.19**	.74***	.73***	1							
⑥	.31***	-.26***	.75***	.78***	.64***	1						
⑦	.29***	-.30***	.92***	.92***	.87***	.88***	1					
⑧	.34***	.19**	.28***	.13*	.30***	.21***	.25***	1				
⑨	.30***	.01	.42***	.30***	.45***	.38***	.43***	.42***	1			
⑩	.25***	.01	.15*	.21***	.16*	.17**	.19**	.16**	.32***	1		
⑪	.34***	.02	.27***	.25***	.22***	.25***	.28***	.18**	.35***	.41***	1	
⑫	.45***	.09	.42***	.32***	.42***	.37***	.43***	.66***	.77***	.64***	.69***	1

* $p < .05$, ** $p < .01$, *** $p < .001$

- ① 긍정적 정서표현, ② 부정적 정서표현, ③ 의사소통능력, ④ 교육, ⑤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⑥ 발달지원, ⑦ 양육효능감, ⑧ 기본 정서 및 사회적 행동, ⑨ 자아개념, ⑩ 자기조절, ⑪ 사회적 관계, ⑫ 사회정서발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정서표현성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중공선성문제 검사를 위한 VIF 확인 결과, VIF값이 10이하(1.11-3.72)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의사소통능력, 교육,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발달지원 그리고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정서표현, 부정적 정서표현이 사회정서발달에 미치

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표준화된 계수(β)값을 살펴보면 사회정서발달에 의사소통능력은 .25로 정(+)적 영향을 미치며 ($t=2.48, p<.01$), 교육은 -.22로 부(-)적 영향을 미치며 ($t=-2.06, p<.05$),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은 .28로 정(+)적 영향을 미치며($t=3.25, p<.001$),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총 설명력은 21.7%로 나타났고($R^2=.22$),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8.26, p<.001$).

또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표 9.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정서표현성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S.E	t	p	VIF	R ²	F	p
사회 정서 발달	(상수)	2.47	.00	.16	15.45					
	의사소통능력	.17	.25	.07	2.48**	.014	3.54			
	교육	-.14	-.22	.07	-2.06*	.040	3.72	.22	18.26***	.00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18	.28	.06	3.25***	.001	2.54			
	발달지원	.11	.17	.06	1.80	.074	2.91			
	(상수)	2.42	.00	.19	13.06					
	긍정적 정서표현	.41	.47	.05	8.07***	.00	1.11	.20	33.83***	.00
부정적 정서표현	-.04	-.06	.04	-1.02	.31	1.11				

* $p < .05$, ** $p < .01$, *** $p < .001$

하여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표준화된 계수(β)값을 살펴보면 사회정서발달에 긍정적 정서표현은 .47로 정(+)적 영향을 미치며($t=8.07, p<.001$),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정서발달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총 설명력은 20.3%로 나타났고($R^2=.20$),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33.83, p<.001$).

IV. 논의 및 결론

1.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정서표현성, 영아의 사회정서 발달

첫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연령과 양육참여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령은 의사소통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양육효능감 전체에서 만 45세 이상 집단보다 만 45세 이하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양선미(2007)와 전향미(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령의 단위를 5년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았다는 선행연구(양선미, 2007; 정수진, 2000; 홍정유, 2007)의 결과와 일치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았다는 전향미(2009)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에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적극적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선행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육참여시간은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과 발달지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양육참여시간의 경우 양육효능감과 관련하여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영아-어머니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박화윤과 마지순(2013)의 연구를 감안할 때 양육참여시간은 어머니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발달에서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학력과 직업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학력, 직업에 따른 양육효능감의 차이가 없었다는 선행연구(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이경하, 2009)의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른 정서표현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학력과 양육참여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서에 대해 보다 애정적이고 수용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선행연구(김경희, 2010; 김미경, 2013; 김순정, 2000; 남현정, 2008; 정은주, 200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양육참여시간이 높은 집단에서 부정적 정서표현성이 높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피드백이 칭찬과 격려뿐이 아니라 낙담이 되기도 한다는 이미라(2010)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특히 김미란(2005)은 완벽주의적인 기준과 목표를 설정하는 부모들은 지시나 비판적인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떠한 피드백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양육참여시간에 따른 구체적인 상호작용의 유형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서표현성이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김문신, 2003; 이어주, 2016; 홍혜란, 2008)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정서표현성은 연령보다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이나 신념 등 여러 다양한 변인들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직업에 따른 정서표현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는 이은주(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 변인에 따른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의 차이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학력과 양육참여시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력의 경우 기본정서 및 사회적 행동에서 학력이 낮은 고등학교 졸업 집단의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이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발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김윤수, 2003; 최정미, 2002), 학력이 낮은 어머니의 집단에 속한 영아의 기본정서 및 사회적 행동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저소득가정이라도 부모자녀관계가 좋으면 아동의 발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강한나와 박혜원(201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고등학교 졸업 집단의 어머니가 기본적인 자녀 돌보기와 같은 양육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가 더 높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갑순과 박윤조(2016)가

학력이 높은 어머니들이 높은 취업률로 인해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양육참여시간은 자아개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유아의 긍정적 자아개념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Sullivan(1953)의 연구에 의해 뒷받침된다(김현진, 2009 재인용).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정서표현성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정서표현성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이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높게 영향을 미치며, 의사소통능력 순서로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교육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들(박소영, 2006; 서희, 2012; 윤서희, 2014; 이윤진, 2006; 정은주, 2005)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양육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나 양육지식에 대한 능력이 높을수록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그리고 사회정서발달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녀의 발달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려는 능력이 높고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머니-영아 관계 혹은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상호작용은 긍정적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의미 있는 주변 사람들과 자녀양육 및 발달에 관한 정보를 나누며 그들로 부터 현실적인 도움과 지원을 받는 것이 양육효능감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증진시킬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면,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하위요인인 긍정적 정서표현성은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정적 정서표현성은 부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사회정서발달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김문신, 김광웅, 2003; 김호정, 2001; 한미림, 2013; 한영민, 2005)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어머니가 기쁨과 애정 등의 긍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자녀는 정서표현성과 정서이해력이 높았고 분노, 화, 슬픔 등의 부정적 정서표현을 많이 할수록 자녀의 정서능력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유은희, 임미옥, 2006). 이처럼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은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주며, 따라서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인 정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인지시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정서표현성을 기르기 위한 올바른 교육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정서표현성은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양육효능감은 어머니가 양육을 잘할 수 있도록 양육효능감을 높이고 또한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을 기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자신의 생각, 감정, 욕구 등을 자유롭게 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정서환경을 조성하고 이러한 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지역의 소재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이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를 가진다. 둘째, 본 연구는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 보고에만 의존하여 자료를 수집했다는 제한점이 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측정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질문지와 함께 관찰법, 면담 등의 자료를 함께 활용하거나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영아의 부모 중 어머니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또한 높아지고 있으므로 아버지의 영향력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정서표현성에만 국한시켰으므로 다른 변인들도 함께 포함시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한나, 박혜원(2013). 저소득가정 영유아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특성 및 하루 일과시간에 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1(6), 613-622.

- 권연희(2012). 유아의 사회적 위축과 관련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및 정서표현성. **대한가정학회지**, 50(5), 13-24.
- 김갑순, 박윤조(2016).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6(3), 27-44.
- 김경희(2010). 어머니의 결혼만족도와 정서표현성 및 유아의 정서지능 간의 관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문신(2003).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문신, 김광웅(2003). 어머니의 정서표현과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6(1), 3-13.
- 김미경(2013). 어머니의 정서표현이 유아의 창의적 인성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란(2005). Adler의 개인심리학에 근거한 격려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숙령, 고윤희(2013). 어머니의 부정 정서표현성 및 영유아 탄력성이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성과 연령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3(2), 27-51.
- 김순정(2000).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정서적 부적응 및 친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빈(2005). 부모의 사회화 양육신념과 남·여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수(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영유아 발달수준의 차이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진(2009).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어머니와 유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나(2011). 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및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사회·정서적 행동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호인(2010). 2세 영아의 사회정서발달 평정척도 개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호정(2001).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양균(2006). 영아의 사회·정서 능력과 기질 및 애착 간의 관계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남현정(2008).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및 언어통계 유형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은미(2011).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위한 음악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태형(2002). 어머니의 사고양식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6), 43-62.
- 박미라(2017).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효능감이 영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영(2006).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자기효능감 및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화윤, 마지순(2013).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 및 양육효능감이 영아-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6), 2727-2734.
- 백승선, 안연경, 광경화(2017). 감정코칭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 정서표현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7(2), 1-24.
- 백지숙, 권은주(2017). 부모-유아 상호작용, 또래상호작용,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언어 및 문해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7(2), 99-114.
- 서희(2012).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수준 및 양육효능감이 영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혜린(2007).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정서조절 전략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2007).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165-183.
- 송하나, 최경숙(2006). 모자 상호작용에서 정서표현성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11), 50-65.
- 안라리(2005). 유아의 개인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정서발달, 사회적 능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보라(2007).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기질이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선미(2007). 어머니의 취업 형태에 따른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인성특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승희(2016). 부모와 영아 간 상호작용 행동 평가를 위한 부모의 반응성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6(4), 129-147.

- 오영희, 우수경, 김화자(2006). 어머니의 정서표현성 및 언어 통제 유형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간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0(1), 149-165.
- 우수경(2008). 유아의 성, 기질, 정서능력 및 사회적 능력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교육학회지**, 15(1), 259-280.
- 유미(2008). 어머니의 놀이 신념과 정서표현이 유아의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은희, 임미옥(2006). 부모의 정서표현성과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7(6), 97-106.
- 윤서희(201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정서조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도의 조절효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연정, 이미숙(2007). 가족건강상이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105-122.
- 이경하(2009).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 효능감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하, 서소정(2012). 영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영아발달 간의 관계 연구: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3), 53-77.
- 이미라(201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피드백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자기격려,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사라, 권정임, 이혜린(2009). 자녀의 발달단계별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도 조사연구: 학령기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국보육학회지**, 9(4), 1-24.
- 이수진(2011).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수준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여주(2016).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진(2006). 사회적 지원과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순(2002).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과의 관계.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연(2010). 영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지**, 1(9), 43-61.
- 이주옥(2008).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비교. **영유아교육연구**, 11, 41-61.
- 이충량, 문혁준(2011).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또래놀이 행동의 관계. **생활과학연구논집**, 31(1), 66-91.
- 이한애(2007). 어머니와 교사의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친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문혁준(2011). 어머니의 심리적 복지감과 가족 건강상이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4), 183-203.
- 임영미, 정희정(2016). 보육교사의 정서지능, 정서노동, 정서 표현성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6(4), 77-105.
- 장사남(2012). 어머니의 분리불안 및 영아에 대한 애착과 영아의 사회정서발달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향미(2009).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인성특성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수진(2000).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주(2005). 유아의 행동적·정서적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은주(2007). 어머니 정서표현성 및 정서 수용태도가 유아의 성격특성과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숙, 이양희(2007).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취학전 아동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4), 97-112.
- 최문희(2010). 취업모 가정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 결정 요인 탐색: 가정환경과 보육시설 특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미(2002). 어머니의 성인기 애착과 애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4), 125-138.
- 한명숙(2016). 부모의 인성 리더십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유아 인성의 매개효과. **한국보육학회지**, 16(1), 121-140.
- 한미림(2013). 어머니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민(2005). 부모의 정서표현 및 유아에 대해 정서표현 수용태도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정희(2005). 유아교사의 정서표현성과 유아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선미(2017). 어머니의 자녀권리존중 실행, 양육효능감, 모-자녀관계 및 만 2세 영아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정유(2007). 어머니의 놀이신념 및 양육효능감과 양육 행동과의 관계.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혜란(2008). 유아의 기질, 정서능력, 친사회적 행동발달 및 어머니의 친사회성과 관련된 양육신념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147.
- Brownell, C. A., & Kopp, C. B. (2007). Transitions in toddler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C. A. Brownell & C. B. Kopp (Eds.),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the toddler years: Transitions and transformations*, (pp. 1-40). New York, NY: Guilford.
- Cassidy, J., Parke, R., Butkowski, L., & Braungart, J. (1992). Family-Peer connections: The rol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3), 603-618.
- Dunsmore, J. C., & Halberstadt, A. G. (1997). How does family emotional expressiveness affect children's schema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97(77), 45-68.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Gross, D., & Rocissano, L. (1988). Maternal confidence in toddlerhood: Its measurement for clinical practice and research. *The Nurse Practitioner*, 13(3), 19-31.
- Halberstadt, A. G. (1986). Family socialization of emotional expression and nonverbal communication styles and skil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4), 827-836.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Y: The Guilford press.
- Miller, S. M., & Greenburg, M. L. (1989). Coping with stress and frustration: Origins, nature and development. In M. Lewis & C. Saarni (Eds.), *The Socialization Of Emotions*. (pp. 263-314). New York: Plenum Press.
- Saarni, C. (1979). Children's understanding of display rules for expressive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15(4), 424-429.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on Infant's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Mi Suk Park

Director, Apple tree Child Care Center

Hee Jung Chung

Assistant professor,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ongshin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efficacy and emotional expression on infant's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69 infants and their mothers who attended day care centers in G district of S city and the data was collected by surve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t*-test and ANOVA test using SPSS 16.0 program, Scheffé test by post 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irst, parenting efficacy,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of infants showed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participation time, and academic background. Parenting efficacy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ge and parenting time,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education and parenting time. Infant's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ducational attainment and parenting time. Second, maternal parenting efficacy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were found to have an influence on infant's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Conclusion/Implications: Maternal parenting efficacy and emotional expressiveness seem to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social emotions in infants, and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grow the children healthy in social, emotional aspect, various education programs which could improve parenting efficacy and positive emotional expression are necessary.

Received July 28, 2018

Revision received August 23, 2018

Accepted September 5, 2018